

#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조윤찬\*, 김승한\*\*, 김승환\*, 최제호\*\*\*, 진주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건양대학교 방재보안학과, \*\*\*건양대학교 스마트농산업학과  
e-mail:25609507@konyang.ac.kr

##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rategies of Barrier-Free Tourism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san World Strawberry Industry Expo

Yun-Chan Cho\*, Seung-Han Kim\*\*, Seung-Hwan Kim, JeHo-Choi\*\*\*, Juan Jin\*

\*Dept of Department of Disaster Safety & Firefighting, \*\*Dept of Disaster  
Prevention and Security, \*\*\*Dept of Smart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 요 약

본 연구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무장애 관광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국내 선행사례인 성수동 '축제를 즐길 지도'와 강릉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시설개설뿐 아니라 교통, 정보, 서비스까지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포용적 관광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을 마련되어 있으나 전용 승하차 공간, 안내 시스템, 저장버스 연계 등 세부 인프라가 부족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관광약자 안내센터 구축, 보조기기 대여 및 전문 인력 배치 등 종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포용성과 접근성을 갖춘 국제적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 브랜드 가치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 1. 서론

논산딸기축제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왔다. 2023년에는 5일간 약 35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딸기 65톤이 판매되었으며[1], 2025년에는 4일간 52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2]. 그러나 축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약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논산지사와 논산지사후원회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관람객들이 개선 필요 요소로 '접근성'을 16%나 선택하였고[3], 일부 행사장은 이동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다[4]. 이에 논산시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지만[5], 이는 일반 관람객 중심의 조치였으며 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2027년 국제행사로 열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단순한 규모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포용적 참여 기반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화의 가속과 등록장애인 수 증가, 관광약자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은 무장애 관광을 더 이상 선택이 아

닌 필수 과제로 만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132개소를 지정했으며[6], 강릉과 울산은 '무장애관광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정보·시설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7].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성을 넘어서, 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한다. 따라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역 농업·산업·관광을 융합하는 행사로서 사회적 포용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 사례와 정책적 흐름을 분석하여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무장애관광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적 지역관광 모델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무장애 관광의 정의

2021년 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무장애 관광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였다[8].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보장을 넘어, 고령자, 임산부, 유아 및 유아 동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 주체가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장애 관광은 지역축제나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농업·문화·관광이 융합된 산업형 행사로 발전하려는 만큼, 물리적 시설 개선(이동 경로·화장실·주차장 등)뿐 아니라 정보 제공(다국어 안내·점자·수어)과 서비스 인식 개선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람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제고하는 포괄적 박람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3.1 국내 사례 분석

##### 3.1.1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

서울특별시 성수동의 축제인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 장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지도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만들었다[9].



[그림 1] 축제를 즐길 지도[3]

축제를 즐길 지도는 누구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지도라는 뜻으로 성수동 일대의 축제 장소 31곳의 경사로, 출입문,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픽토그램으로 쉽게 표시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어 축제가 열리는 곳을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약 3개월간의 조사 후 온라인으

로 배포하였다[10].

성수동의 축제를 즐길 지도는 무장애 관광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축제 장소 31의 경사로 출입문,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픽토그램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현장을 조사한 참여적 조사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조사 결과를 온라인 지도 형태로 배포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본 사례는 무장애 관광이 시설 설치뿐 아니라 정보 제공 방식과 참여 과정까지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도 약자들이 편의시설 정보 제공 방식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 3.1.2 국내 무장애관광 조성사업 현황

정부는 매년 무장애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경사로,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되었다[11].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3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아 무장애 관광 기반을 마련하였다[12].

[표 1] 강릉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 내용

구분		내용
1차년도	교통 개선 및 관광안내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장애 관광버스 도입 및 운영</li> <li>무장애 미니밴 구입 및 운영</li> <li>관광약자 차량탑승 설비 및 편의시설 정비</li> <li>무장애 관광 안내 센터 조성</li> <li>민간시설 접근성 개선</li> </ul>
2차년도	접근환경 개선 및 관광안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시설 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 지원</li> <li>무장애 여행상품 발굴 및 운영</li> <li>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li> <li>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운영</li> </ul>
3차년도	관광정보 및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운영</li> <li>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li> <li>관광약자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 대여</li> </ul>
4차년도 이후	관광안내센터 및 여행상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운영</li> <li>무장애 여행상품 운영</li> <li>관광약자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 대여</li> </ul>

위 표 1은 강릉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강릉시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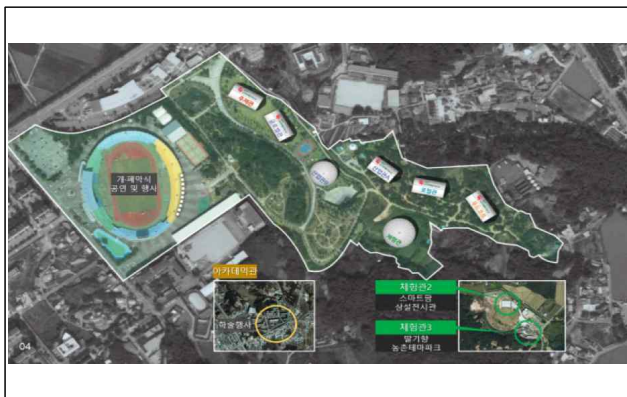
관광약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시설 간 연계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조성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플랫폼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부족한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미니밴 8대, 관광버스 1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 11곳에 무장애 관광버스 및 미니밴을 위한 승하차장을 조성하였다[13].

강릉시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사례는 관광약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교통, 정보,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무장애 관광버스와 미니밴을 도입하고, 관광 안내센터를 구축하여 이동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여행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무장애관광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도 강릉 사례처럼 무장애 교통수단과 안내센터 운영, 그리고 체험형 프로그램과 관광약자 지원 장비를 병행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

### 3.2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무장애 관광 현황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논산시민가족공원을 주행사장으로 하며, 부행사장으로 딸기향농촌테마공원에서 진행한다[14].



[그림 2]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배치도

주행사장인 논산시민가족공원의 무장애 시설은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며, 주 출입 접근로와 출입통로에 턱이 없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부행사장인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되어 있다[15].

논산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15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024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20대를 도입하였다[16]. 또한,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59대이며, 노선수는 132개이다[17].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모두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 전용 승하차 공간과 같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세부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 시스템 부재, 행사장까지의 저상버스 운행 노선 등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이 부족하다.

### 3.3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무장애관광 개선 방향

성수동의 축제를 즐길 지도와 강릉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모두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제공, 교통수단, 참여적 조사 방식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실현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은 구비되어 있으나, 장애인 전용 승하차 공간, 안내 시스템, 저상버스 연계 등 세부적인 무장애 편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라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포용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교통수단 확충, 안내 센터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보조기기 대여 및 안내 인력 배치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선행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관광약자의 실제 체험 전 과정에 걸쳐 접근성을 보장하는 통합적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 4. 결론

본 논문은 무장애 관광의 개념과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성수동 ‘축제를 즐길 지도’는 참여적 조사 방식과 온라인 정보 제공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강릉시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교통·정보·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관광약자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

반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모두 기본적인 무장애 시설(장애인 주차장·화장실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 전용 승하차 공간, 안내 시스템, 저상버스 연계 등 세부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발전을 준비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포용적 참여 기반 축

제로 거둬나기 위해선 첫째, 무장에 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노선 확충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 센터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보조기기 대여, 전문 안내 인력 배치 등 서비스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대책은 관광약자의 이동·정보 접근·체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무장애관광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무장애관광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포용성과 접근성을 갖춘 국제적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 및 정책 사례 분석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축제 참여자의 체험 데이터, 다양한 관광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층 조사 등이 부족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 기반의 실증적 검증과 이용자 참여형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전철세, “2023 논산딸기축제, 35만여명 방문...딸기 65톤 판매 ‘흥행’”, 굿모닝충청, 13일, 3월, 2023년.
- [2] 충청메시지, “논산딸기축제 성료”,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보도자료, 7일, 4월, 2025년.
- [3] 중도일보, “논산 딸기축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중도일보, 1일, 5월, 2019년.
- [4] 남문현대포럼, “[딸기축제 돌아보기] 논산딸기는 여전히 목마르다.”, 남문현대포럼 온라인 칼럼, 2024년.
- [5] 놀피신문, “논산시, 교통 혼잡 완화 위한 안내 제공”, 놀피신문, 2025년
- [6] 문화체육관광부,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추진 동향”, 지방자치 이슈, 19일, 2월, 2024년
- [7]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실시”,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22일, 11월, 2024년
- [8] 법제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1일, 3월, 2021년.
- [9] 사계절 공정여행, “무장애 지도 축제를 즐길 지도— 2025크리에이브X성수.ver”, 9월, 2025년.
- [10] 윤혜숙, “축제를 즐길 지도 있으면, 휠체어 타고도 축제 즐길 수 있어요”, 내 손안에 서울, 10일, 10월, 2024년.
- [11] 나라살림연구소,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추진 동향”, 지방자치 이슈, 19일, 2월, 2024년.
- [12] 문화체육관광부,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8일, 4월, 2022년.
- [13] 김은진, “부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 5월, 2025년.
- [14] 논산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문화관광 축제 행사, <https://nonsan.go.kr/korean/html/sub03/030605.html>
- [15] 열린관광, “무장애 관광정보”, 8월, 2025년,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
- [16] 전현민, “논산시, 교통약자 대상 바우처 택시 운영”, 충남일보, 15일, 4월, 2024년,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295>
- [17] 논산시, “시내버스 노선별 저상버스 예외 승인 현황”, 1월, 2025년.